

## 李箱의 초기 일문시 「且8氏의 出發」의 전고(典故)와 모더니티의 이중적 구조

송 민 호

(단국대학교 한국어문학과)

### 1. 李箱 문학 텍스트의 전고(典故)들

李箱은 1931, 32년 무렵 『朝鮮と建築』에 다수의 일문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들은 본격적인 문예잡지가 아닌 건축 관련 잡지에 실렸고 본격적인 문학작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일종의 실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그들 중 일부는 ‘漫筆’란에 수록되었다는 사실<sup>1)</sup> 때문에

- 1) 이상은 ‘金海慶’이라는 본명으로 1931년 7월에는 「異狀ナ可逆反應」 외 6편을, 같은 해 8월에는 ‘鳥瞰圖’라는 제하의 연작시 8편을 『朝鮮と建築』의 ‘漫筆’란에 일본어로 발표한다. 김주현은 이 시들이 ‘漫筆’란에 실려 있다는 사실과 이후에 실린 ‘三次角設計圖’ 연작(7편, 1931.10), ‘建築無限六面角體’ 연작(7편, 1932.7)이 기하학적인 정리나 도식에 가까워 시적인 형상화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시들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김주현, 『이상 소설 연구』, 서울: 소명출판, 1999, 423-424면.)

주 제 어: 이상, 且8氏의 出發, 安西冬衛, Z伯號, 모더니티, 전고

Yi-sang, Mr. Cha8's departure, Fuyue Anzai, Graf Zeppelin, modernity, the authentic precedent

지금까지 그리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물론 그 이유들 중에는 이 시들이 일본어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은 이미 번역되어 있어서 언어 해독 상의 어려움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일본어 해독 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sup>2)</sup>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어’, ‘수식’, ‘다이어그램’ 등 1930년대 초기의 이상이 스스로 사용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어떤 관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종의 인공적인 언어체계<sup>3)</sup>를 구성한 이상의 기호체계를 해석하고 맥락화 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상이 당시 『朝鮮と建築』에 실었던 시들의 경우, 이후 국문으로 쓰인 시들보다 좀 더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당시의 문화 및 지식적인 배경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1930년대의 문화, 예술적 사조들의 배경이 되는 지적인 사유들, 최신 과학 담론, 예술적 가치체계 등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었던 이상이 경험하였던 지적 편력을 어느 정도 따라잡아 이상이 참고했던 전고들의 내용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상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적인 지평을 획득하기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상 연구자들이 단순히 이상의 문학텍스트의 내적인 해석 경향을 넘어 비교문학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문화적인 연구 방법

2) 김주현은 이상의 일본어시의 정리 및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이상의 텍스트를 원활하게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되어왔다고 본다.(김주현, 「이상 문학의 텍스트 확정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학회, 1999; 김주현·최유희, 「이상 문학의 원전 확정 및 주석 연구」, 『우리말글』 22, 우리말글학회, 2001)

3) 김윤식은 이상이 일본어로 시를 창작했던 문제를 ‘친일’의 문제와는 거리를 둔 일종의 인공어의 장안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12-158면.) 이는 가와무라 미나토가 이상의 일본어시를 제국의 수단을 가지고 이를 인공화 하여 역으로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 보았던 관점(川村溱, 유유정 역, 「모더니스트 이상의 시세계」, 『文學思想』, 1987. 10.)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서 민족적인 관점 보다는 현대성의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상이라는 작가를 친일/민족적이라는 잣대로 해석하기는 무리이며 오히려 현대성의 보편적인 사상과 언어적 체계를 추구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는 이상 연구의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론, 문헌학적 방법론, 심지어 타이포그래피적 관점 등 다양한 경로로 이상문학을 해석적 경향을 넓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상 텍스트의 심층 속에 접근하여 그 전고들이 도래한 배경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상문학의 미로적인 체계 속으로 탐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이상이 참조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 경로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당시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던 이상이 접할 수 있었던 사상과 지식의 수준과 높이를 확인해내지 못한다면 자칫 과잉된 해석에 빠지게 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석행위 당시에 제기되고 유행했던 새로운 이론들을 방법론 삼아 이상문학 텍스트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이상문학의 해석적 다양성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으나 이러한 태도는 이상이라는 작가에 대한 신화화에 기여하거나 이론의 이념적 지평에 맞게 작가의 텍스트를 짜깁기하여 해석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상문학 텍스트가 근거하는 전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사실을 밝히는 일종의 주석적인 작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그간 더욱 넓어지지만 했던 이상문학 해석이 명료한 이해에 이르기 보다는 오히려 공허한 양상에 빠지게 된 현재의 상황과 관계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문학 텍스트에 내포된 전고들을 파헤치는 작업은 이상이 발표한 일문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아직도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시들이 발표되던 시기가 李箱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형성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이상은 전공인 건축학뿐만 아니라 근대 물리학, 예술학, 물론 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을 세련된 문학적인 형식 아래 정련하여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여과 없이 대담한 형식 속에 담아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상의 작품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당대의 다수한 지식과 문화적인 전고들을 해석적 밑바탕에 깔지 않으면 시의 어떤 부분도 해석해내기 힘들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이 당시 발표했던 일문시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도서관 등의 공적인 지식 관리 기관을 통해 이상이 접할 가능성과 여지가 있었던 당시의 지식, 문화, 예술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민지 문학청년 이상의 내면을 재구성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1932년 7월, 『朝鮮と建築』에 ‘建築無限六角體’ 연작 중 하나로 발표된 「且8氏의出發」을 중심으로 이상 문학의 형성과정에 있어 동시대에 이상이 경험했던 지식들과 문화예술적인 배경들이 어떤 전고의 형태로 내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의 시작으로 삼아보고자 한다.

## 2. ‘輪不輾地’의 출처에 대한 재조명

李箱이 『朝鮮と建築』에 발표했던 일문시들은 어느 것이나 실험적인 형식과 생경한 관념어의 사용, 기하학적 도식과 수식의 사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且8氏의出發」은 특히 그 난해함으로 인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이 시에 사용되는 특히 일본어와 한자로 표기된 생경한 관념어들이 서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쉽게 해석적 틈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령은 「且8氏의出發」에 담겨진 의미를 최초로 해석하고자 시도하며 ‘且8氏’가 의미를 가진 언어기호라기보다는 ‘△’나 ‘▽’와 같은 활자의 회화적인 의미를 강조한 형태로 보았으며,<sup>4)</sup> ‘地球를掘鑿하라’라는 구절이나 ‘生理作用’이라는 단어를 남녀 간의 성적 행위의 비유로 해석하였다. 이후 이 시의 내용을 남녀 간의 성적 행위에 대

4) 이어령은 이와 같은 해석의 일환으로 ‘且’는 모자 모양으로, ‘8’은 눈사람이나 오투기 같은 형태로 보아, ‘且8氏’를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의 형상으로 보았다. 이어령이 교주(校註)한 「且8氏의出發」(文學思想資料研究室 編, 『李箱詩全集』, 갑인출판사, 1978, 146면)의 각주 1번을 참고할 수 있다.

한 비유로 해석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승훈은 새롭게 이상 시 전집을 정리하며 「且8氏의 出發」에 대한 그간의 해석들을 종합하여 ‘곤봉’이나 ‘달’의 이미지를 전부 ‘성기’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비유로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sup>5)</sup> 이렇게 이상의 시 속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전부 성행위를 암시하는 비유 혹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연관되어 이상의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해명<sup>6)</sup>이라든가 창작의식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거의 모든 이상의 작품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이상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의 공통적인 한계는 그것이 시 속에 쓰인 시어들의 연관관계와 의미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몇몇 단어나 숫자가 내포하는 관념적인 상징성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해석자의 주관적 상상이나 기존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념에 의존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상 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이상에 대한 불분명한 선입견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우려를 낳는다.

권영민은 이러한 기존의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且8’을 ‘且+八=具’의 파자행위로 설명하고 이 구(具)자가 이상의 친우인 구분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에는 형태적인 유사성에 의존하여 단순히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해석되던 ‘棍棒’을 구분옹의 육신, 혹은 그가 사용하던 붓의 몸통으로 보아, 척박한 대지에 꽂혀진 곤봉이 자라나 하나의 산호나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구분옹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위대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且8’을 의미가 아닌 도식적 형태 혹은 상형적 기호로 보고자 했던 이전의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를 시 전체의 의미적 전개와 연결하도록 하는 절묘한 해석이다. 특히 구(具)자가 모자를 쓰고 걸어가는 모양이라든가 『莊子』로부터 패러디한 ‘輪不轉地’ 등과의 연관적인 해석을 통해 이상이 한자의 형태적 모양과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하는 해석

5) 이승훈 역음, 『李箱문학전집1』, 문학사상사, 1989, 178-180면.

6) 고은, 『이상평전』, 민음사, 1974.

은 분명 이전의 해석들로부터 일층 나아간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다만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輪不轉地’라는 구절을 『莊子』의 패러디로 해석하고 이를 ‘且8氏’와 마찬가지로 한자를 사용한 이상의 시적 기교로 보는 것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니라 『詩と詩論』의 6권에는 수록되어 있는 安西冬衛의 시 「一九二七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輪不輾地」という莊子の説は、飛行の可能の暗示ではなかつたらうか。

「以迂爲直」という孫子の學は、二點の最短距離が曲線であるといふ、大圏航路の啓示ではなかつたらうか。

私が球面三角法の講義に退屈してゐる時に、リンドバーグは僅に七歳の幼兒だつたのだ。<sup>8)</sup>  
(安西冬衛, 「一九二七年」 부분-밑줄 인용자)

여기에서 安西冬衛는 『莊子』의 雜篇 중 ‘天下’편에서 ‘輪不蹶地’를 인용하여 시 속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상과 마찬가지로 ‘蹶’을 ‘輾’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이 시가 1929년 12월에 발행된 『詩と詩論』 6호에 실려 있고, 「且8氏の出發」이 1932년 7월에 『朝鮮と建築』에 실렸으므로, 이 둘을 비교하면 이상이 쓴 ‘輪不輾地’라는 어구가 적어도 이상의 독자적인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 출판된 『莊子』의 원전 몇 종을 확인해보면<sup>9)</sup> 당시 『莊子』에서의 표기는 ‘輪不蹶地’가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安西의 의도적인 시적기교이거나 관례적인 바뀌 쓰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 구절이 安西의 의도적인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위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輪不輾地」という莊子の説は(「輪不輾地」라고 하는 장자의 설은)”이라고 하며, 시구 속에서 장자의 글귀를

7) 권영민, 『이상텍스트연구-이상을 다시 묻다』, 문학에디션 펴, 2009, 230-241면.

8) 安西冬衛, 「一九二七年」, 『詩と詩論』 6, 東京: 厚生閣書店, 昭和5年(1930), 80면.

9) 鈴木楨治郎, 『莊子講義』, 東京: 興文社, 明治26年(1893년), 62면; 小柳司氣太 譯, 『莊子』, 東京: 國民文庫刊行會, 大正9年(1920년), 79면; 『和譯漢文叢書 第1編 老子, 莊子』, 東京: 玄黃社, 明治43(1910년), 401면.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가 대상을 패러디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바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sup>10)</sup>

흥미로운 지점은 이상이 자신의 시 속에 쓴 ‘輪不輾地’를 『莊子』로부터 끌어와 쓴 것이 아니라 『詩と詩論』에 실린 安西의 이 「一九二七年」에서 끌어온 것인가 하는 여부일 것이다. 1930년대 초 당시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詩と詩論』을 비롯하여 『詩と詩論』 동인의 시집들<sup>11)</sup>이 거의 시간 차이 없이 들어와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사실<sup>12)</sup>과 이상이 『詩と詩論』을 폭넓게 독서하고 그로부터 영향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상이 『莊子』를 직접 읽고 그것으로부터 이 ‘輪不輾地’를 끌어온 것이라기보다는 安西의 시를 읽고 그 맥락으로부터 끌어왔으리라는 추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연구에서 이상이 창작 상에서 기존 한자의 부수를 바꿔 쓴다든가 한자를 파자(破字)한다든가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이를 전적으로 ‘데포르마시옹’의 기교적인 차원과 연관 짓거나 이상이 높은 수준의 한학적 소양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이어져 왔던 기존 연구의 관점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물론 이상이 사용한 한자 변형의 기법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창작적 성격을 모두 배제한다거나 이상이 사용한 한자 어구들이 한학적 소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

10) 중국에서 『莊子』와 같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고문의 경우, 한자의 부수를 바꾸어 쓰는 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표기상의 관례라고 하나 실제로 그러한 표기가 적용된 예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安西冬衛가 중국 대련에서 공부했었다는 사실과 모종의 연관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11) 당시 『詩と詩論』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동인들은 『詩と詩論』이 나오던 厚生閣書店에서 ‘現代の藝術と批評叢書’라는 이름으로 총서를 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北川冬彦이 번역한 マックス・ジャコブ(막스 자콥)의 산문시집 『骰子筒』이나 三好達治가 번역한 ポポドレエル(보돌레르)의 『巴里の憂鬱』 같은 번역시집들이나 安西冬衛의 『軍艦茉莉』, 春山行夫의 『楡のパイプを口にして』, 『植物の断面』이나 北園克衛의 『白のアルバム』, 上田敏雄의 『假説の運動』 등의 창작시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집들은 대부분 당시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다(『朝鮮總督府圖書館新書部分類目錄: 昭和一二年一月一日 現在』(京城: 朝鮮總督府 圖書館, 1937-38) 참고).

12) 앞서 위의 『詩と詩論』 6권의 경우, 1929년 12월 10일에 발간되었는데 조선총독부 도서관에는 1929년 12월 23일에 입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으로 일본시의 영향이라고 단정 지어 환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상’이라는 작가를 둘러싼 신화형성 과정을 통해 이상의 수사적 기교나 한학적 소양을 기정사실로 절대화하던 기존의 시선에 어느 정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상의 성장 내력 상, 그를 입양했던 백부 김연필이 조선총독부의 상공과 관리였다는 사실과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신명학교, 동광학교, 보성고보 등의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시에서 사용한 한문 고전들 속 어구들이 전적으로 한문교육과 한학적인 소양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던 것은 다소 무리한 추정이 되기 쉬운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상이 安西와 같은 동시대의 시인들의 시를 통해 『莊子』와 같은 고전에 대해 관심을 키워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상의 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새로운 해석적 참조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시적 모티프로서의 ‘Z伯號’와 모더니티의 이중적 구조

일단 이상이 安西의 시 「一九二七年」으로부터 『莊子』의 「輪不輾地」를 꺼내어 쓰고 있을 가능성을 남겨둔 채, 두 시를 꼼꼼하게 읽으며 둘 사이의 의미적인 차원을 결부하여 보도록 하자. 우선 安西의 시 전문을 대략 번역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크누트 에케나의 인터뷰가 나의 머리에 무게추를 달았다.

「이곳은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같은 기분이 든다. 어느 아침의 달이 그라프 체벨린과 함께 일본에 찾아온 것처럼 생각된다.」고.//

나는 기울은 채로 회상 속으로 떨어져 간다.//

일찍이 나는 子史를 배웠다.

「輪不輾地」라고 하는 장자의 설은, 비행의 가능성을 암시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以迂爲直」라고 하는 손자의 학은, 2점 사이의 최단거리가 곡선이라고

하는, 대권항로의 제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구면삼각법의 강의에 따르면해하고 있던 때에, 린드버그는 겨우 7세의 유아였던 것이었다.//

후년 그가 아틀란틱(atlantic, 대서양)을 넘어갔던 때, 나는 지상에서 밀가루 꽃을 쥐어뜯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다.

아니오. 밀가루 꽃을 쥐어뜯는 것보다도 더 공허한 행위를……<sup>13)</sup>

(安西冬衛, 「一九二七年」 전문)

이 시는 독일의 비행선인 그라프 체펠린(Graf Zeppelin, ツエツペリン伯)호<sup>14)</sup>가 세계일주를 계획하고 독일을 출발하여 1929년 8월에 중간 기착지로 일본 동경에 도착했던 사건을 시적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것이다. 安西는 체펠린호에 탑승했던 에케나 박사의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2년 전에 행해졌던 찰스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sup>15)</sup>을 떠올리며, 비행 산업과 기계문명에 있어서의 서구의 놀라운 발전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

13) 安西冬衛, 「一九二七年」, 앞의 책, 80-8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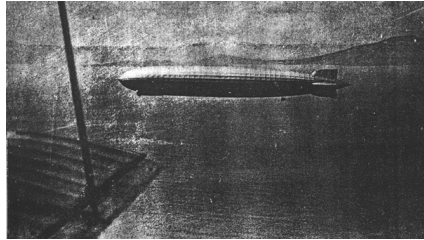
위 시의 일본어 전문은 다음과 같다.

“クヌート・エツペナーのインタビューとが私の頭に錘をつける。/ 「此處はフリードリヒスハーフェンと同じやうな氣がする。あの朝の月がグラーフ・ツエツペリンと一緒に日本にやつて來たやうに思はれる」と。// 私は傾き乍ら回想の中へ墮ちてゆく。// 曾て私は子史を習つた。/ 「輪不輟地」といふ莊子の説は、飛行の可能の暗示ではなかつたらうか。/ 「以迂爲直」といふ孫子の學は、二點の最短距離が曲線であるといふ、大圏航路の啓示ではなかつたらうか。/ 私が球面三角法の講義に退屈してゐた時に、リンダーバーグは僅に七歳の幼児だつたのだ。// 後年彼がアトランティックを超えた時、私は地上に麪包の花を窺つてゐたにすぎなかつたのだ。いいえ、麪包の花を窺るよりもつと空しいぐさを……”

14) 이 ‘그라프 체펠린호(LZ-127)’는 독일의 페르디난트 폰 체펠린백작과 휴고 에케너가 만든 것으로 LZ-1호부터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온 것이다. 이 ‘그라프 체펠린호’를 타고 에케나박사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하펜에서 출발하여 12,021킬로미터 떨어진 일본에 도착했다(下村宏, 『飴ん棒』, 東京: 日本評論社, 昭和5, 249-250면 참조). 이 체펠린호는 ‘체伯號’, ‘제伯號’, ‘Z伯號’ 등으로 지칭되었는데 여기에서 ‘伯’은 독일어인 ‘Graf’에 대응하는 제작자인 체펠린의 백작지위를 표시하는 것이다.

15) 찰스 린드버그가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을 성공한 것은 1927년 5월이다. 이 시의 제목인 ‘1927년’은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했던 년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서도 동양에서 이미 ‘輪不輾地’  
나 ‘以迂爲直’ 같은 중국의 철학  
자 장자와 손자의 말 속에 이미  
첨단의 비행역학적 전제가 들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일  
찍이 장자가 언급했던 ‘輪不輾地’  
(바뀌는 구르지 않는다)는 비행



<그림 1> 『東京朝日新聞』, 1929.8.20, 1면

가능성에 대한 암시이고 손자가 말했던 ‘以迂爲直’(굽음으로 곧음을 삼는  
다)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깨뜨리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성취를 담  
고 있는 발언<sup>16)</sup>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서양을 횡단하며 대권  
항로를 개척했던 서구의 린드버그가 비행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랐던 백치  
이자 ‘유아’였을 때, 동양인인 자신은 이미 『莊子』나 『孫子』를 배우며 그들  
이 가르치는 ‘첨단의’ 구면삼각법을 배웠으며 오히려 그것에 지루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27년이 되어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에 성공했을 때 전혀 뒤바뀌게 되어, 자신은 겨우 지상에서 아무 의미  
도 없는 공허한 행위나 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지가 뒤바뀌게 되  
었다. 安西는 이 시를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용해되지 않는 과학기술문명적  
인 차이를 동양의 정신적인 권위로 전치해내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자  
하지만, 서양의 물리학과 비행역학, 그리고 이를 응용한 기계 문명에는 결국  
압도당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7)</sup>

16) 이상은 자신의 문학 텍스트 내에서 여러 번 유클리드 기하학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  
고 있으며 김윤식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의 전환과정  
을 20세기적 사상적 전환과 연관시키고 또 이를 근대성의 모더니티와 관련시켜 해  
석한 바 있다(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20-46면). 하지만 安西  
의 위 시를 보면 당시에 이러한 인식은 오직 이상 특유의 것이었다기보다는 일반적  
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17) 서구의 물질적인 기계 문명에 대한 安西의 동양 고전의 우위론은 루쉰이 「阿Q正傳」  
에서 풍자하고자 했던 ‘阿Q’의 ‘정신적 승리’를 떠올리게 한다. 즉 동서양의 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安西는 중국의 고전을 전유하여 해석하여 그러한 상황을 타개해 보

이처럼 당시 독일의 비행선이 북극점 주변을 통해 세계를 일주하며 다른 아닌 일본을 중간기착지로 택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朝日新聞』은 특파원을 체펠린호에 파견하고 동승하게 하여 1929년 8월초 체펠린호의 출발 이전부터 동경에 기착하기까지 거의 매일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으며 체펠린호가 동경에 도착한 8월 18일에는 2차례에 걸쳐서 호의를 발행하는 등<sup>18)</sup>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sup>19)</sup> 또한 이 매체는 틈틈이 체펠린호가 지금까지 어느 거리만큼 왔는지 지도에 표시하여(<그림 2> 참조) 거의 실시간으로 체펠린의 비행을 중계하다시피 하여 그의 세계일주가 단순히 전혀 다른 시공간적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동시대의 지구상의 시공간 차원 속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실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림 2> 『大阪朝日新聞』 1929. 8.19, 2면

고자 하지만 물질문명에 있어서 동서양의 현격한 차이 앞에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마는 심리적 매커니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루신, 김시준 역, 「아큐정전」, 『루신(魯迅)소설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96-151면).

- 18) 실제로 체펠린호가 독일을 출발한 것은 8월 15일이며 동경까지는 4일이 걸린 셈이다(Guillaume de Syon, *Zeppelin! Germany and airship, 1900-1939*, 박정현 역, 『비행선, 매혹과 공포의 역사』, 도서출판 마티, 2005, 217-225면). 당시 『東京朝日新聞』은 체펠린호가 출발하기 전인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준비과정을 기사화 하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로 관심을 끌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9) 당시 「朝日新聞」에 실린 ‘Z伯號’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蘭明 선생님의 선행연구와 특별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蘭明, 「李箱における横光利一受容の深層-『上海』および『靑い大尉』との葛藤」, 『日本研究』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8, 191-192면).

이러한 체펠린호의 세계 일주는 일본인들로 하여금 세계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즉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함께 얽혀진 모더니티의 구조를 형성했던 것인데, 말하자면 이 체펠린호의 일주를 통해 일본과 유럽 사이에 놓인 모더니티의 해소되지 않는 간극을 비행선이 이동한 일만여킬로미터의 거리만큼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sup>20)</sup> 지도 위에 시각화되어 나타난 모더니티의 거리는 따라잡아야만 하는, 혹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서구의 기계, 기술문명에 대한 동경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에 대한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이중적인 내면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安西는 위 시에서 체펠린호의 세계 일주를 통해 희망과 절망이 얽혀 있는 복잡한 심리적 내면을 형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서양의 기술문명의 절대적인 차이를 지도 위의 물리적인 거리로 치환하는 과정 자체가 서구의 근대적인 비행기술을 통해서야 가능해졌다는 것이 바로 安西가 무기력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체펠린호의 세계일주가 일본인들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과 그 양상은 1929년에서 1931년 사이에 北原白秋를 비롯한 많은 일본의 시인들이 바로 이 체펠린호를 모티브 삼아 창작했던 시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江口隼人是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체펠린 비행선이 온 제국호텔에서는 한턱낸다더라. / 그렇다면 좋겠네.  
/ 제국호텔의 광고가 된단다 / 그것 하나는 좋네 / 그런 이야기를 하며 노송  
나무담 저녁길을 친구들과 걸었다. / 다음날 아침, / 신문지는 펄럭펄럭하는  
가을바람을 해가 눌렀던 에케나의 황동색 사진에 흰구름이 고요히 흘렀다.  
/ -나도 비행선 타게 되면 좋겠다. (후략)

(江口隼人, 「肥つた秋」<sup>21)</sup> 부분)

20) W. Schivelbusch,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brbundert*,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1999.

21) 江口隼人, 「肥つた秋」, 『全日本詩集』, 東京: 文書堂, 昭和4年(1929), 9면.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929년 일본에서 나온 시 모음집, 『全日本詩集』에 실린 이 시에서 江口隼人は 체펠린호에 대한 펍 신속한 감상을 보여준다. 체펠린 비행선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묵었던 제국호텔 앞이 관계자들과 시민들로 웅성거리는 것을 두고서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감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을 배경으로 체펠린호에 대한 세간의 대단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을 준다. 그 배경에는 분명 서구에 비해 뒤쳐진 일본의 기술문명에 대한 열등감과 부러움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30년 이후에 일본에서 나온 체펠린호에 관한 시들은 이와는 달리 대부분 체펠린호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더불어 그러한 기술문명을 일본의 미래와 연관 지으며 낙관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명 일본인들의 정신 속에 동서양의 기계 문명적 차이에 대한 전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아내여, 잠깐 집밖에 나가 / 체펠린백호의 모습을 보렴. / 3백만 제국도시의 시민의 환호 위를 / 백은의 선체에 석양을 뒤집어 쓴 / 빛나고, 엄숙하고, 느긋하게 / 비상하는 한가로운 체펠린백호의 모양을 보렴. // 체펠린백호, Z127호 / 이것이야말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사자였다. / 그 피곤한 기색도 없이 / 남성스럽게 위대한 하늘의 정복자를 보라. (후략)  
(澁谷榮一, 「ツエツペリン伯號を迎へて」<sup>22)</sup> 부분)

“ツエツペリン飛行船が來ると帝國ホテルでは御馳走するとき / そりやあいね / 帝國ホテルの廣告になるとき / そいつはいいね / —そんな話をして檜葉垣の夜路を友達と歩いた / 翌朝、 / はい紙はペラペラと秋風をひるがへしたエツケナーの眞鍮色の寫眞に白い雲がひつり流れた / 俺も飛行船乗りになりやあよかつた”

- 22) 澁谷榮一, 「ツエツペリン伯號を迎へて」, 『赤き十字架』, 東京: 交蘭社, 昭和6年(1931), 90면.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妻よ、暫し戸外に出て / ツエツペリン伯號の姿を見やう。 / 三白萬の帝都の市民の歡呼の上を / 白銀の船體に夕陽をあびて / 輝しく、肅々と、悠々と / 飛翔するのそかなツエツペリン伯號の姿を見やう。 // ツエツペリン號、Z一二七號 / これこそは歐亞を結ぶ平和の使者だ / あの疲れの色もない / 男々しい偉大なる空の征服者を見よ…”

아아, 체펠린, 은백의 흰 꼬리 독수리. / 너야말로 예지와 환상의 여왕,  
시간과 공간의 단축자, 지구를 도는 급속력의 가죽벨트, 기류의 단추. 하늘  
계의 심박음. / 너야말로 정교하고 치밀한 근대의 두뇌, 무너지지 않는 힘의  
모체, 과연 양등하는 중심의 발효모체, 포만의 육체, 혼향의 공기주머니.  
(중략)

오오, 용약한다, 초월한다, 또 탕요한다, 유동한다, 대기의 비상자, 발견  
자, 정확한 한 선의 코스 / 비상한다, 비상한다. 지상을, 녹소(綠素)를, 인류  
를, 산옥(山獄)을, 해양을, 무지개와 달을 열애하는 정열의 태풍, 천상의 감  
각체, 쾌적한 여행선, 체펠린. / 오라, 최신으로 하고 지순한 과학의 처녀,  
장려한 꽃의 신부, / 아아, 아침은 외쳐라, 세계의 새벽에 외쳐라, 일본은,  
동방의 태양은 외쳐라. / 오라, 너의 태양은 외쳐라.

(北原白秋, 「ツエツベリン伯號に寄す」<sup>23)</sup> 부분)

여기에서 澁谷榮一은 체펠린호에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유럽과 아  
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또한 北原白秋의 경우, 근대적인 기계과학문명의 총아로서 체펠린호를 추  
켜세우고 있다. 이 시들은 마치 체펠린호의 과학기술이 언젠가는 고스란히  
일본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가 가까이 연결되어 있음을 부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은 아침  
으로 세계의 문명은 새벽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새벽과 아침의 시간적

23) 北原白秋, 「ツエツベリン伯號に寄す」, 詩人協會 篇, 『一九三一年詩集』, 東京: アトリエ, 昭和6年(1931), 78-79면.

이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ああ、ツエツベリン、銀白の尾白鷺。/ 君こそは叡智と幻想との女王、時と空との短縮者、地球を廻る急速力の調革、氣流の鉤 空界の心音。/ 君こそ精緻なる近代の頭腦、不壊力の母體、はた昂騰する童心の醗酵母體、飽滿の肉、熏香の氣囊。(중략) おお、踊躍する、超越する、また蕩搖する、流動する、一氣の飛翔者、發見者、正確なる一線のコース。/ 飛翔する、飛翔する、地上を、綠素を、人類を、山獄を、海洋を、虹と月とを熱愛する熱情の嵐、天上の感覺體、快適なる旅船、/ 來れ、最新にして至純なる科學の處女、壯麗なる花嫁、/ ああ、朝は呼ぶ、世界の黎明(黎明의 오식-인용자)に呼ぶ、日本は、東方の太陽は呼ぶ。/ 來れ、汝の太陽は呼ぶ。”

차이는 절망과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그 현대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으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sup>24)</sup>를 확인해보면, 체펠린호가 일본인들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이상 시 「且8氏の 出發」과 비행선 ‘Z伯號’ 사이의 관련성

지금까지 ‘Z伯號’가 세계일주 도중에 일본에 기착한 사건이 일본인들의 심리적 내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영향이 安西冬衛의 시 「一九二七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살펴보았다. 문제는 과연 이상이 자신의 시 「且8氏の 出發」에서 安西가 사용했던 ‘輪不輾地’를 사용하면서 체펠린호라는 비행선의 기술적 문명과 관련된 배경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가 하는 여부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상은 이미 「且8氏の 出發」이 포함된 ‘建築無限六面角體’ 연작 중 한 작품인 「AU MAGASIN DE NOUVEAUTES」의 한 구절에서 이미 이 ‘Z伯號’, 즉 체펠린 백호를 언급한 바 있다.<sup>25)</sup>

快晴の空中에 鵬遊하는 Z伯號 蝸蟲良藥이라고 쓰여져 있다.<sup>26)</sup>

(李箱, 「AU MAGASIN DE NOUVEAUTES」 부분)

24) 이외에 天野隆一의 시 「白夜物語」(『一九三〇年詩集』, 東京: アルス, 昭和5年(1930), 6면)에서는 이 체펠린호를 ‘Z伯號’로 언급하며 등장시키고 있으나 그에 대한 특별한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25) 당시 『東京朝日新聞』은 체펠린백호를 “ツエ伯號”라 통칭하고 있었고, 『大阪朝日新聞』은 ‘Z伯號’라고 통칭했다. 한편 당시 『朝鮮日報』은 체펠린호를 ‘첵伯號’, ‘체伯號’ 등으로 지칭하고 있었으므로 이상이 ‘Z伯號’라는 표기를 빌어온 것은 아마도 『大阪朝日新聞』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26)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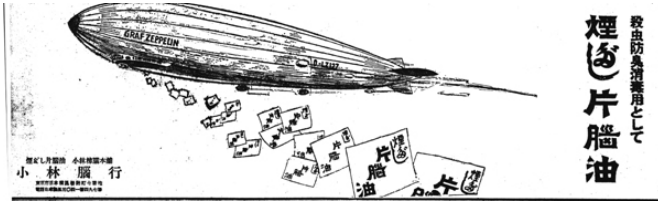
“快晴の空に鵬遊するZ伯號。蝸蟲良藥と書いてある。”

이 시 「AU MAGASIN DE NOUVEAUTES(새로움들의 백화점에서)」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화적 편린들을 마치 스케치하듯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sup>27)</sup> 위에 인용된 행은 이 시 속에서 의미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독립된 한 행에 해당한다. 쾌청한 하늘 위에 마치 『莊子』의 ‘鵬’<sup>28)</sup>과도 같은 ‘Z伯號’가 떠 있는데 그 표면에는 ‘蛔虫良藥’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력 상, 그가 1929년 8월경 일본 동경에만 왔다 갔던 Z伯號, 즉 체펠린호를 실제로 보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체펠린호에 대한 정보를 신문기사나 앞서 언급했던 관련 시들을 통해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시에서는 ‘Z伯號’의 표면에 ‘蛔虫良藥’이라고 써 있다고 하니, 이는 아마 체펠린호를 활용한 광고를 신문지상에서 보았을 것이다. 당시 『朝日新聞』에는 체펠린호를 이용한 광고들이 자주 게재되었는데 초반에는 독일산의 기계부품이나 영사기(필름, 렌즈) 광고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의약품광고나 식품광고로 이어졌다. 특히 <그림 4>의 『東京朝日新聞』에 광고된 ‘糠漬の素’는 의약품은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기능<sup>29)</sup>을 갖고 있는 의약품인데 이것의 기능과 광고의 형태를 보면 이상이 위의 시 구절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광고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주로 묘사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위 시에서 이상이 ‘Z伯號’에 대한 특별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자’의 ‘鵬’에 비견되는 ‘Z伯號’가 고작 자본주의 광고에 활용되는 현실

27) 이 시는 형식적으로 볼 때, 당시 『詩と詩論』에 자주 실렸던 ‘시네포엠’이라는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동인들 중 하나였던 竹中郁 등은 위의 형식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을 짧은 행 속에 묘사하듯 시 창작을 한 바 있다.

28) 이 ‘鵬’은 『莊子』의 內篇, ‘逍遙遊’에 등장하는 새이며, 북녘 검푸른 바다의 거대한 물고기인 ‘鯨’이 변하여 된 것으로 등넓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새이다. 이상이 ‘鵬遊’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Z伯號’를 ‘鵬’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안병주, 전호근 譯註, 『莊子 1』, 전통문화연구원, 2001, 26-44면.)

29) 이 의약품의 효능 일반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流行病菌、寄生虫卵殺菌、病原を豫防します’(유행병균, 기생충알을 살균하고, 병원을 예방합니다.)이 적혀 있다(『東京朝日新聞』, 1929.8.21, 4면 광고).



<그림 3> 『東京朝日新聞』, 1929.8.21, 6면 광고



<그림 4> 『東京朝日新聞』, 1929.8.21, 4면 광고

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시대비판적인 정서를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처럼 이상이 ‘Z伯號’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시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면 아가의 ‘輪不輾地’를 바로 安西의 앞 시의 맥락에서 끌어왔을 여지에 있어서도 보다 그럴만한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sup>30)</sup>

輪不輾地 展開된地球儀를앞에두고서의設問一題

(이상, 「且8氏の 出發」 부분)

「且8氏の 出發」의 위 구절 속에서 보자면 ‘輪不輾地’는 다름 아니라 ‘展

30) 당시 체펠린백호의 일본 도착이 조선인들에 있어서도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朝鮮日報』 역시 비록 단신(短信)이나마 1929년 8월 13일부터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싣고 있었다는 사실과 체펠린백호의 도착에 관해서 1929년 8월 21일에는 신문지면 3면의 반을 할애하며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朝鮮日報』, 1929.8.13-15, 각 3면; 8.17-23, 각 3면 관련 기사 참조).

開된 地球儀'를 앞에 두고서 제출된 설문 중의 하나이다. '展開된 地球儀'가 3차원의 입체인 지구를 2차원 평면의 지도 위에 풀어놓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 이는 <그림 5>처럼 당시 신문에 게재된 북극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체펠린호의 비행 궤적을 표시한 지도를 연상하도록 하는 바가 있다. 즉 '輪不輾地'라는 구절은 이상의 이 시에서 '비행의 가능성'이라는 安西 시의 맥락과 관련되어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보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且8氏の出發」이 체펠린호와 관련된 시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大阪朝日新聞』 1929.8.30, 1면

## 5. 모더니티에 대한 절망적 의식과 꽃 없는 식물의 생존방식

「且8氏の出發」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龜裂이生긴' 진창 위에 '棍棒'을 하나 꽂는다. 이 '棍棒'은 수목(樹木)으로 변하여 사막 위에 울창한 산호나 무를 이룬다. 또한 이 '棍棒'은 '사람에게地面을떠나는아크로바티를가르치는' 존재이다. 즉 이 '棍棒'은 '輪不輾地'라는 비행 가능성을 통해 인간에게 지구의 모양을 전개하여 보여주었던 체펠린백호의 길쭉한 원통형의 모양을 비유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Z伯號'라는 비행선은 분명 인간으로 하여금 공중을 비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술은 아니며 동서양의 균열된 모더니티 지평도를 딛고선 기계문명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棍棒'이란 이중적인 의미, 즉 인간에게 비행 가능

성을 상기하도록 하는 ‘Z伯號’ 자체이면서 서구의 기계문명을 상징하는 울창한 산호나무를 이루는 원인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龜裂이生긴莊稼泥의地에한대의棍棒을꽂음. / 한대는한대대로커짐. / 樹木이盛함. / 以上꽂는것과盛하는것과의圓滿한融合을가리킴. (중략)

滿月은飛行機보다新鮮하게空氣속을推進하는것의新鮮이란珊瑚나무의陰鬱한性質을더以上으로增大하는것의以前의것이다.

輪不輟地 展開된地球儀를앞에두고서의設問一題

棍棒은사람에게地面을떠나는아크로바티를가르치는데사람은解得하는것은不可能인가.

(이상, 「且8氏의 出發」 부분-밑줄 인용자)

한편 위에서 밑줄로 강조된 대목은 분명 당시 체펠린호에 탑승했던 에케나 박사의 인터뷰를 상기하도록 한다. 에케나는 일본 도착 직후 했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본에서 보았던 달이 자신의 고향에서 본 달과 같다는 의미로 ‘그날아침의달이첼伯號와함께日本으로 száll아온것과가티생각된다’<sup>31)</sup>고 말한 바 있으며 이 인터뷰 내용은 安西의 시 속에 고스란히 인용되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달이 비행선을 따라왔을 리가 없으므로 이 에케나의 발언은 당시의 아시아인들이 가장 바라고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동시성을 충족해주는 발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에케나 박사의 인터뷰를 받아 이상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맥락에서 ‘滿月은飛行機보다

31) 당시 『朝鮮日報』(1929.8.21)는 일본에서 행했던 에케나 박사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전재하고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宴會를맛친『에케나-』博士는記者에게對하야簡單히

署名도야모것도絶對로謝絶합니다오늘밤은조금머리가압혀서宿所로도라가서卽時休養을하도록하여주시오旅行中에는한사람도病人이업고참으로愉快하게지내었습니다그만큼하고오늘밤은容愜해주시요

라고말하얏다그리고小『에케나-』氏는

여기는『푸리드릿히스하-펜』과같은感想이난다그날아침의달이첼伯號와함께日本으로 száll아온것과가티생각된다”(밑줄 인용자)

新鮮하게空氣속을推進하는것의新鮮'이라 표현하고 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유라시아 대륙을 4일 만에 횡단했던 비행선 체펠린보다도 빠르게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건너온 것이다. 달이 비행선보다도 빠르게 공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산호나무가 울창해지기 전, 말하자면 서구의 기술문명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의 일인 것이다. 비행가능성이란 적어도 '달'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는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인간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비행할 수 없다. 이상은 절망하는 安西와는 달리 이를 동서양 사이의 모더니티적인 간극이 아닌 인간의 보편성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棍棒'이라는 도구 없이 그것이 가르치는 '아크로바티'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말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地球를掘鑿하라**

同時에

**生理作用이가져오는常識을拋棄하라**

熱心으로疾走하고 또 熱心으로疾走하고 또 熱心으로疾走하고 또 熱心으로疾走하는 사람 은 熱心으로疾走하는 일들을停止한다.

沙漠보다도靜謐한絶望은사람을불러세우는無表情한表情의無智한한대의珊瑚나무의사람의脖頸의背方인前方에相對하는自發의인恐懼로부터이지만 사람의絶望은靜謐한것을維持하는性格이다.

**地球를掘鑿하라**

同時에

**사람의宿命的發狂은棍棒을내어미는것이어라**

(이상, 「且8氏의 出發」 부분)

여기에서 이상은 오히려 그렇게 절망하기보다는 역으로 지구를 굴착하라고 명령한다. 인간은 땅을 발로 디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을 떠다니는 모더니티를 동경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불가능성의 구조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생리작용이나

고정관념 같이 인간의 물리적인 삶을 규정짓는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차라리 도스토예프스키처럼 물리적인 지하 혹은 정신적인 내면 아래로 침잠하는 삶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이미 이러한 비행기술과 기계문명이 구축한 현대성의 모더니티가 결국은 인간들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절망의 구조를 띠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물론 이상이 ‘三次角設計圖’ 연작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이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속도를 관념 속에서 실험했던 바의 연장선에 해당되는 것이다.<sup>32)</sup> 빛보다 빠른 엄청난 속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는 결국에는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계기로 남게 될 뿐인 것이다.

또한 이상은 인간의 ‘발광(發狂)’을 두 가지 차원, 즉 숙명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으로 나눈다. 인간의 숙명적인 ‘발광’은 ‘棍棒’을 내미는 것, 즉 ‘Z伯號’와 같은 기계문명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인 ‘발광’이기도 한 것인데 인간이 구축한 기계문명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지점이면서 한계의 지점이기도 한 까닭이다. ‘且8氏’의 온실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隱花植物’이 꽃을 피웠던 것은 분명 자발적인 행위일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且8氏’가 감광지<sup>33)</sup>에 비추어 만들어낸 인공적인 조화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대성의 모더니티로부터 도주하고자 했으나 결국 다시 간헐 수 밖에 없는 숙명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32) 송민호, 「李箱의 「線에關한覺書」에 나타난 시공간 차원과 분신의 주제」,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구문화사, 256-266면 참조.

33) 1920-30년대 초현실주의자였던 만레이(Man Ray)는 사물을 감광지 위에 얹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었으며 이를 레이요그램(rayogram)이라고 명명한 바 있으며, 모호리 나기(Moholy-Nagy) 역시 비슷한 시도를 하였고 이를 포토그램(photogram)이라고 명명했다. 이상은 『朝鮮と建築』 권두언에서 위의 ‘모호리 나기’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 6. 결론

본고는 그간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상의 초기 일문시들 중 하나인 「且8氏의 出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금까지 『莊子』의 직접인용, 혹은 패러디로 생각되던 ‘輪不輾地’(바퀴는 구르지 않는다)가 실제로는 일본의 『詩と詩論』의 동인이었던 安西冬衛의 시 「一九二七年」에서 이미 똑같은 형태로 바꾸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상이 『莊子』로부터가 아니라 安西의 해당하는 시의 원래 맥락으로부터 해당하는 구절을 차용해왔을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安西의 이 시는 1929년 8월 세계일주 도중 동경을 방문한 체펠린백호, 즉 ‘Z伯號’를 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것인데 그는 ‘輪不輾地’를 비행가능성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Z伯號’는 서구의 기계문명의 총아로서 동서양 사이의 절대적 거리를 시각화함으로써 모더니티의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적 정황을 고려하자면, 이상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輪不輾地’를 차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且8氏의 出發」이 기존의 해석대로 성적인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시라든가 구본웅과 관련된 시라기보다는 이전에 발표된 ‘三次角設計圖’의 연장선에 위치한 인간에게 내재된 한계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관념 실험의 일종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에 스스로 종속되는 양상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었다.

李箱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오면서 이상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적 방법론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교 문학적 방법이나 문화연구적 방법 등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단지 정보의 질과 양적인 유사성의 측면이 아닌 정보의 전파경로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문학 텍스트 속에서 초월적인 현대성의 사유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해석적 계기이자 해석적 다양성의 총족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이상 자신의 사상 속에 그러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의 텍스트 속에는 분명 그가 동시대에 경험했던 지식, 문화, 예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일종의 전고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그것들을 추적해내어 이상이 경험했던 당시의 문화예술적 배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한문 문헌

- 이어령 교주(1978), 文學思想資料研究室 編, 『李箱詩全作集』, 갑인출판사.
- 이승훈 엮음(1989), 『李箱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 김주현 주해(2005), 『이상문학전집』 1, 소명출판.
- 권영민 엮음(2009), 『이상전집 1』, 문학에디션 뿔.
- 고은(1974), 『이상평전』, 민음사.
- 권영민(2009), 『이상텍스트연구-이상을 다시 묻다』, 문학에디션 뿔.
- 김윤식(1992),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 김윤식(1998), 『이상 문학 텍스트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주현(1999), 『이상 소설 연구』, 소명출판.
- 김주현(1999), 「이상 문학의 텍스트 확정에 나타난 문제점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학회, 307-334.
- 김주현·최유희(2001), 「이상 문학의 원전 확정 및 주석 연구」, 『우리말글』 22, 우리말글학회, 275-306.
- 루쉰(1996)·김시준 역, 「아큐정전」, 『루쉰(魯迅)소설전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민호(2007), 「李箱의 「線에關한覺書」에 나타난 시공간 차원과 분신의 주제」,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신구문화사, 247-272.
- 안병주·전호근 譯註(2001), 『莊子 1』, 전통문화연구회, 2001.

### 2. 외국문헌

- de Syon, Guillaume.(2005), *Zeppelin! Germany and airship, 1900-1939*, 박정현 역, 『비행선, 매혹과 공포의 역사』, 도서출판 마티.
- Schivelbusch, Wolfgang.(1999), *Geschichte der Eisenbahnreise-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 und Zeit im 19. Jahrhundert*,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궁리.
- 川村湊(1987), 유유정 역, 「모더니스트 이상의 시세계」, 『文學思想』.
- 蘭明(2008), 「李箱における横光利一受容の深層-『上海』および「青い大尉」との葛藤」, 『日本研究』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87-209.
- 蘭明(2009), 「李箱 「地図の暗室」を浮遊する“上海”-横光利一受容及びその他」, 『日本研究』 4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73-294.
- 下村宏(1930), 『飴ん棒』, 東京: 日本評論社.
- 東亞學藝協會 編(1929), 『全日本詩集』, 東京: 文書堂.
- 澁谷榮一(1931), 『赤き十字架』, 東京: 交蘭社.
- 詩人協會 篇(1931), 『一九三一年詩集』, 東京: アトリエ.
- 詩人協會 篇(1930), 『一九三〇年詩集』, 東京: アルス.
- 鈴木楨治郎(1893), 『莊子講義』, 東京: 興文社.
- 小柳司氣太 譯(1920), 『莊子』, 東京: 國民文庫刊行會.
- 발행자 없음(1910), 『和譯漢文叢書 第1編 老子, 莊子』, 東京: 玄黃社.
- 『詩と詩論』1-14, 東京: 厚生閣書店.
- 『東京朝日新聞』, 『大阪朝日新聞』, 『朝鮮と建築』 외

원고 접수일: 2009년 9월 29일

심사 완료일: 2009년 11월 17일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7일

ABSTRACT

---

Study on the Authentic Precedent in Yi-Sang's Early Poem, 'Mr. Cha8's Departure(且8氏의 出發)' and the Dual Structure of Modernity

Song, Min-ho

This Study tries to interpretate one of Yi-Sang's early poems, 'Mr. Cha8's departure'(「且8氏의 出發」). In the meanwhile, one verse in the poem, 'a wheel doesn't roll'('輪不輾地'), is thought as the direct quotation from *Jang-ja*(『莊子』) by a lot of researchers. In fact, Yi-sang quoted that verse from Fuyue Anzai's poem, 'Year 1927,'(in Shitoshiron 『詩と詩論』6, 1930), not from *Jang-ja*(『莊子』). This fact could be checked with confirming the similarity of the deformatig that verse in Yi-sang's poem and Anzai's poem.

Anzai wrote 'Year 1927' motivated by the event which the german airship, Graf Zeppelin('Z伯號') arrived at Tokyo through the Europe-Asia continent in 1929(Zeppelin achieved a world travel through Tokyo). At that time, the arrival of Zeppelin affected the mental attitude of most of Japaneses to the western modernity. Many japanese poets wrote poems about Zeppelin's arrival and achievement with the emotion of jealousy and hope. Anzai's poem also suggests the despair of japanese to western machine civilization and the mental triumph with old oriental philosophy.

The verse in the poem, ‘a wheel doesn’t roll’(‘輪不輾地’) is quoted just as such a context.

Most importantly, Yi-sang also possibly quoted the verse in the same context from Anzai’s that poem. Yi-sang already wrote a word Zbaekho(“Z伯號” ; it is an abbreviation for Graf. Zeppelin.) in a poem, ‘AU MAGASIN DE NOUVEAUTES’. If so, there is a new way to analyse Yi-sang’s difficult poem, ‘Mr. Cha’s departure’(「且8氏의 出發」). Yi-sang proposes new survival method against western machine civilization represented by Zeppelin through that poem. That method is ‘digging’. Like Dostoyevsky’s ‘underground liver’, Yi-sang felt tired of modern civilization. He criticized the duplicity of the western modernity providing despair and hope to the people in asia.

